



유동·식품업계 오징어게임2 한정판 선배 너



Life

SPA·백화점 패션시장 양극화 심화 L2



# “유저에게 ‘맞춤 재미’ 선사... 일상에 스며드는 게임 만들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위메이드플레이 이경민 PD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친근하고 편안한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함께 휴식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게임을 선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경민 위메이드플레이 PD의 말이다.

◆‘애니팡4’ 4년 만의 출시작...기술·역사·노하우 모두 담았다

위메이드플레이의 이경민 PD가 총괄하게 된 ‘애니팡 4’는 2020년 6월 출시된 모바일 퍼즐 게임으로, 위메이드플레이의 대표 지식재산권(IP) ‘애니팡’을 활용한 오리지널 애니팡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2012년 ‘애니팡’, 2014년 ‘애니팡2’, 2016년 ‘애니팡3’에 이어 출시한 ‘애니팡4’는 직전 시리즈 출시 4년 만의 출시작으로 모바일 퍼즐게임 10년의 기술, 역사와 노하우를 담은 게임으로 평가된다.

‘애니팡4’는 국내 모바일 퍼즐 게임 중 가장 화려한 그래픽과 다양한 이벤트, 게임 속 미니게임을 갖추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모바일게임으로 국민 게임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애니팡4’는 주 단위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정규 퍼즐 스테이지만 지난 11월 6200여 개를 돌파했으며 주도는 월단위 이벤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간 7종, 월간 4종 미니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첫 여성 PD “유저와의 소통 방식 통해 업데이트 이어 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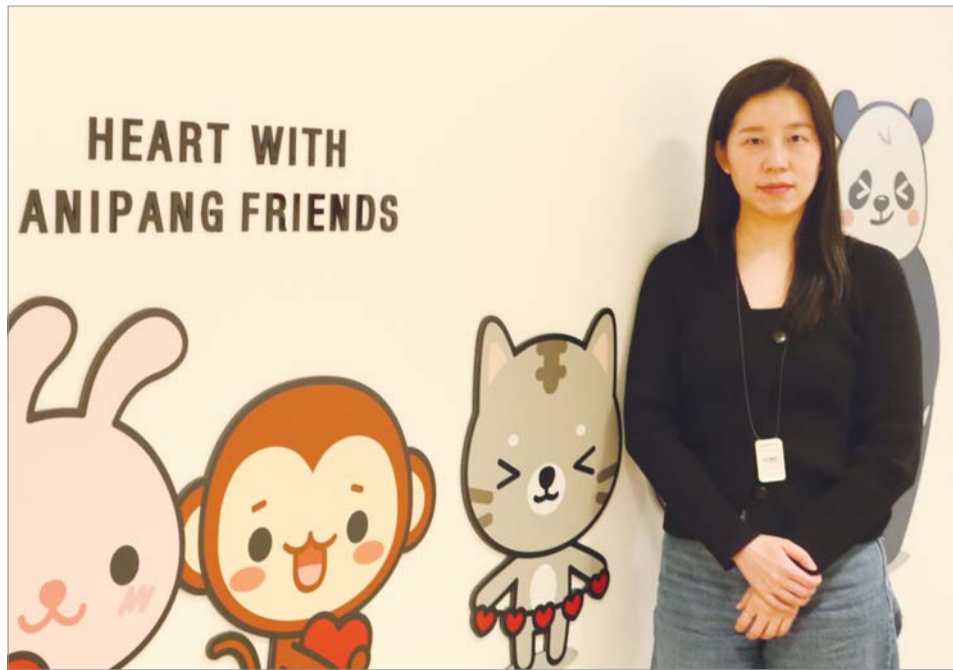
이경민 PD는 2012년 모바일 애니팡 시리즈 첫 출시 이후 13년만에 배출된 첫 여성 PD로 알려지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이 PD는 첫 여성 PD가 된 것에 대해 “플레이어 맞춤형 재미”를 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강한 책임감이 생겼다고 한다.

이 PD는 “사실은 제가 첫 여성 PD인지 모르고 있었다. 라이브 게임 신입 PD로서 배워야 할 게 많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느라 인터뷰 의뢰가 들어오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여성이면서 UI/UX디자이너 경력의 장점을 살려 이용자들에게 ‘플레이어 맞춤 재미’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이용자들과의 소통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애니팡의 첫 ‘신입 여성 PD’라는 것에 열정을 갖게 됐다는 그는 본인의 강점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꼽았다.

이 PD는 “여성에게는 커뮤니케이션(소통)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팀원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 유저들과의 공감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소통하고 반영하는 게 게임



이경민 위메이드플레이 애니팡4 PD

/위메이드플레이



국민 퍼즐게임 ‘애니팡’ 첫 여성 PD 커뮤니케이션 강점으로 재미 이끌어

15년 이어온 시리즈에 부담 느꼈지만 탄탄한 배경에 자신있게 콘텐츠 선배

이용자 플레이 분석해 업그레이드 진행 연습 관련 신규 콘텐츠로 성취감 선사 앞으로는 친근한 게임으로 다가가고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게임의 발전은 유저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재미 있는 것, 없는 것, 부족한 부분 등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니팡4 담당 부담스러웠지만 탄탄한 게임성 덕분에 오히려 자신감 충만”

‘애니팡 4’의 업데이트 등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이 PD는 본인이 맡은 ‘애니팡4’에 대해 15년간 이어온 국민 모바일 게임인 ‘애니팡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받아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애니팡4는 국민 퍼즐 게임인 ‘애니팡’ 시리즈의 정통성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재미 요소를 더해 한 단계 진화한 퍼즐 게임이다. 기존 3매치 퍼즐의 직관적이고 쉬운 재미를 유지하면서도, 스테이지별로 특색 있는 미션과 퍼즐 기믹을 다채롭게 구성해 이용자들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감을 선사한다.

이용자 간 실시간 대전이 가능한 ‘로얄’이나 게임내 소셜기능인 ‘팸’을 운영해, 퍼즐을 넘어선 커뮤니티적 재미가 애니팡4만의 차별화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단순히 퍼즐을 푸는 것을 넘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새로운 차원의 퍼즐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다. 실제 애니팡4는 일간 이용자가 13만 여명에 달한다.

이경민 PD는 처음 전 세대가 즐겨하는 애니팡4를 담당하게 된 데에 큰 부담이 있으면서도 자신이 있었다.

이 PD는 “애니팡4를 맡게 되었을 때 가장 최신작인 만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애니팡 시리즈라는 역사와 탄탄한 스토리, 게임성, 전 세대가 즐겨하는 게임이라는 데에 안도도 됐다. 4년 넘게 함께 해 온 팀원들과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업데이트 했는데 유저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게 애니팡의 힘인가 싶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친근하고 편안한 게임을 만들고 싶다”

애니팡을 시작으로 애니팡2·3·4까지 그래픽, 사운드, 스토리, 퍼즐 플레이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변화를 시도해왔다. 특히 애니팡4는 이러한 진화의 흐름을 집대성한 가장 최신작이다.

이에 이 PD는 유저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데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신 글로벌 퍼즐게임으로 높아진 유저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업데이트를 수차례 진행하여 게임 로딩시간을 단축하고, 더 똑똑해진 퍼즐 플레이와 이벤트 진행 흐름을 더욱 쾌적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등 전체적인 유저경험을 개선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연승관련 콘텐츠를 추가하여 이용자들이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 때마다 더 큰 성취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데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달 1일에는 100개의 퍼즐을 플레이해 건설하는 100층짜리 ‘애니팡 타워’가 새롭게 오픈했다.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이용자들이 남긴 플레이 지표를 분석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즌2가 오는 16일에 오픈 될 예정이다.

또 내년을 맞이해 눈꽃축제와 설날 요리마당 이벤트가 준비됐다. 이를 시작으로 계절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도 이어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도전! 낚시왕!’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애니팡4 유저들에게 다양한 팬서비스도 하고 있다. 출시를 축하하는 모델로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선정해 이벤트를 진행하며 유명세를 탄 ‘애니팡4’는 최근 배우 류승룡과 ‘애니팡 페스타’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전한 바 있다. 또한 출시 4주년을 맞이한 올해 5월에는 애니팡4의 일일 개발자 체험 공고에 일당 천만원을 발표하며 게임팬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유저들이 확장된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고심해 개발하고 있다. 팬서비스 또한 일환이다”며 “2025년에는 5주년을 앞두고 있는 애니팡4를 더욱 알리기 위해 이색 이벤트인 ‘북극유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PD는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친근하고 편안한 게임,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게임, 귀엽고 즐거운 애니팡 친구들과 함께 퍼즐 풀며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애니팡4 메인이미지.



애니팡4 타워.



▲‘황희찬 침묵’ 울버햄튼, 승격팀 입스 위치에도 덜미...리그 4연패  
▲‘원현전 2골’ 이재성, 최우수선수 선정 ‘눈부신 수준...마인즈 핵심’ /사진 뉴시스

▲KIA, 소크라테스와 결별하나...위즈덤 영입 추진 “신체검사 남아”  
▲키움 외야 한자리만 국내 선수...한층 뜨거워지는 경쟁



▲한국 쇼트트랙, 안방서 열린 4차 월드컵 투어 흥성 계주 숲 /사진 뉴시스  
▲이수민, LIV 골프 프로모션 공동 8위...인터내셔널 시리즈 출전권 획득